

불국토를 이루는 '감로의 道'

구세주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중에는 날으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청량리 제단에서 역곡까지 5분 사이에 날아서 온 적이 있음은 그 증인들이 지금 승리제단에 계셔서 궁금한 사람들은 증언을 듣고 확인할 수가 있다. 구세주께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라 의인들이 이루어지면 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을 구세주는 예언하시며 그 원리도 가르쳐 주셨다. 나라는 의식이 완전하면 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고 그 확신에 의하여 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라는 의식의 완전한 소멸을 성경에는 항상 나를 버려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였고 불경에서는 '무이지경, 상락아정'을 증득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미래세에 부처가 출현할 때 국도에 있는 모든 중생이 긴 수명을 얻고 큰 신통력을 얻으며 토지가 순찰보로 된다

하지만 기성종교는 가르침의 이상 실현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기독교 성화에는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을 그려 놓고 있고 불화(佛畵)에는 날아다니는 부처 즉, 비전불의 모습을 그려 놓고 있다. 관세음보살도에도 보살이 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경주의 에메레 종에도 나는 비전불의 모습이 부각돼 있다. 온전히 성불하면 누구나 다 영생하며 날아다니는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구세주는 설하신다.

석존께서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미륵부처님 출현과 '감로의 도'와 불생불멸, 불로불사 대반열반에 대한 예언을 열반경 등 불경을 근거로 제시해 보자 한다. '미륵'이라는 칭호는 범어 마에트리아를 음역한 것으로 그 의미로는 '연합, 통합'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우주와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사명자의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메시아, 기쁨부음 등으로 불 때에 미륵은 성경상의 '메시아'와 동일하며 동일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석가모니는 대반열반경에서 미래세상의 미륵 출현과 일체중생의 성불을 예언하였다. 석가가 완전해탈을 이루었다면 그 법력에 의해 모든 중생들이 다 해탈을 이루었을 것이다. 열반경에는 부처가 출



미륵부처님 출현과 불로불사의 도를 전하는 강연회장에 내린 감로이슬

여러분들이 다 의인들이 되면 이 세상은 영생의 세상으로 뒤집어집니다. 늙고 죽는 세상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세상으로 변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통쾌한 일입니다. 머지않아 몸이 가벼워져 날으며 다니는 때가 옵니다. 영생과 날아다니는 즐거움은 구세주가 주는 선물입니다. (2002.06.07 구세주 말씀 중에서)

현하면 극락, 불국토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석가가 부처였다면 이미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어 있어야 옳다.

'성문제자들이 (석가)여래가 열반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나는 열반에 들지 못하였다. 여래가 열반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성문제자들은 결코 나의 제자가 아닌 응당히 알아야 한다. 이들은 마구니 편에 선 자이며 사견을 가진 악인이며, 정견을 얻지 못한 자이다. 만일 여래는 열반에 들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참제자요 정견(正見)을 가진 자이다.(대반열반경 25권)

여래(부처)는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불로불사의 존재이며 무너지지도 않으며 질병이 없는 자이며 곧 참해탈이나라. 참해탈자 이것이 곧 여래이며 여래는 병이 없으므로 법신(法身)이라 한다. 죽는 자는 몸이 무너져 목숨이 다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죽음이 없다. 이것이 곧 감로이다. 이 감로가 곧 참해탈이다. 여래는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했느니라. 열반경 5권에 나와 있으며 그리고 번뇌 마귀, 음란 마귀, 사방의 마귀가 다 끊어져 없어진다.(열반경 2권)

미래세에 부처가 출현할 때 국도에 있는 모든 중생이 긴 수명을 얻고 큰 신통력을 얻으며 토지가 순찰보로 된다. 중생은 부유하고 풍족하며 욕심을 스스로 버리며 탐욕, 음욕, 성내고 어리석음을 버리며 항상 꽃나무와 과실나무와 향나무가 있고, 중생이 다 청정하고 묘한 음성을 얻으며 항상 서로 화합한다.(열반경 24권)

미륵부처의 증표와 중생구제 위신력은 '감로의 도'

미륵부처의 증표와 중생구제 위신력은 '감로의 도'이다. 불경에서는 감로, 감로수, 대열반광, 범성광명으로 표현하며 대반열반경, 화엄경, 능엄경, 법화경, 감로수진언 등 불경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만일 감로를 먹게 되면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나고, 흑 재자 감로를 먹으면 수명

이 길어져 장수하리라.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감로를 먹게 되면 죽지 않으므로 다시 남이 없어진다고 하였다.(대반열반경 8권 여래성품 4-5)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교인들의 첫째 수행 목표이므로 '감로의 도'로써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불로불사의 경지인 것을 깨닫게 한 설법인 것이다.

대반열반경 5권, 석가모니는 마지막으로 사를 받던 동안 유언과도 같이 설법한 대반열반경에 '감로'에 대하여 이토록 자세히 설명하였다. 몸이 가벼운 것은 '감로광명'으로 마귀가 죽었다는 증거이며, 몸이 아직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은 죄의 값이다.

미륵부처를 만나기만 하면 몸과 마음이 다 행복하게 되고 만사형통한다. 미륵부처가 감로를 내림으로 모두가 다 해탈 성불하는 길을 걸을 수 있으며 결국 상락아정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감로의 도를 논하는 미륵부처님을 찾기를 바란다.*

출처: 유튜브브 진지아롱TV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71>

"생명자는 피 속에서 발생된다"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예배를 봐야 은혜가 됩니다. 웃으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으면 생명자가 발생되는고로 생명자가 발생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이 T인피구라고 그랬죠?

1장 1절에 '하나님은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피가 곧 생명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피 속에 생명자가 있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로 항상 영생의 희망 속에서 살아야 생명자가 피 속에서 발생되는고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점차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 안에 생명이 있는고로 하나님의 신을 떠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기는 삶

충성심이 먼저다

재인박덕(才人薄德)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재능이 뛰어나거나 자기 재능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주위를 두루 살필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재주가 있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탁월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행태가 답답해 보이고 업신여겨질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뭐 저런 머저리가 있냐?" 싶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줄곧 수재(秀才)니, 영재(英才)니, 칭찬만 듣고 자란 데다 일부대학까지 나왔다면 그 기질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연스레 안하무인(眼下無人)이 되기 쉽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사조차도 우습게 볼 수 있다. 속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하고 발칙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상사가 우습게 보이는데 진정한 충성심이 우리나라를 택이 없다. 자기가 상사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으니 상사가 졸(卒)로 보인다. 그런 사람은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 행동을 하는 독불장군(獨不將軍)이 되기 십상이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손익계산이 빨라서 손해 보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남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

충성심이란 조금은 우직한 측면이 있는 것인데, 이런 이들은 '우직'이니 '충직'이니 하는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되니 자기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독주의 경향(傾向)을 보이게 되어 팀위

크를 해치게 된다. 그런 사람은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으면서도 사방으로부터 견제받고 경계 대상이 된다.

동료들조차 그의 능력을 인정은 하면서도 곁에 다가기려 하지 않는다. 상사에 대한 충직함도,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동료에 대한 배려도 없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이것이 재능 있는 사람의 결함이고 한계라 할 수 있다. 결국 재능은 있어도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보다 부정적인 갈등만 조장하는 씨앗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제어능력(制禦能力)이 뛰어나다고 해도 조직은 이런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길 부하로 두거나 리더나 수장으로 앉히는 데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뒤집어 말하자면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충직(忠直)함과 충성심(忠誠心)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사나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재주나 능력보다는 충성심이 더 큰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 눈여겨 봐야 한다. 충성심이야말로 가장 큰 재주요 능력임을 알아야 한다. 재능도 있으면서 충성심도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대학 출신은 채용하기를 꺼리는 기업이 있다. 머리가 지나치게 뛰어난 사람은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며 충직함에 문제가 있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무렵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야! 이 사람이! 그래서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아무리 엄청난 많은 군대를 몰고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끌고 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은 해칠 수가 없어요. 모세 당시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전쟁할 때도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모세가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져지요. 그러나 이 손을 다시 들면 또 이기는 거지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그 적군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적군이 멀하게 되어 있고 이제 이군이 이기게 되어 있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래서 바로 멀지 아니하여 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무렵에 여러 가지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이 구세주가 손만 들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손만 들면 멀하게 되어 있어요. _2001.12.25 말씀

이제 구세주가 구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얻고 말겠지요? 그것이 바로 구세주가 바로 천지개벽의 주인공이고 천지개벽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조류가 흐르는

세상을 뒤집어엎어서 영생의 조류가 흐르게 하는 주체인 고로 그런고로 이제 구세주를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고로 이 세상에 마귀가 때가 다 되어 가지고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괴질이 돌게 해서 죽을 병이 돌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사종론에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열 가호 중에 한 가호만 살고 아홉 가호는 죽는다고. _2001.05.03 말씀

有神論者 大發之時 未動又何 夜鬼發動 「말운론」
유신론자 대발지시 말동우하 야귀발동
勝己之中鬼不知 大發天下 避禍指示謂也
승기중귀부지 대발천하피란지시위야

하나님의 신이 계신다는 유신론자들이 크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말동(未動)은 무슨 뜻인가? 마지막에는 야귀(夜鬼)가 발동하오니 나를 이기는 가운데 살아날 묘수가 있느니라. 이는 귀신도 모르는 일이라. 천하에 큰 환란이 일어날 때 피란하는 법방(法方)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라.*